



전인삼 박춘맹 왕기석 송재영 윤진철

다섯 명창이 들려주는 힘차고 깊이 있는 소리

우진문화재단의 '제28회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은 힘차고 깊이 있는 소리로 펼쳐 간다. 올해 무대는 전인삼·박춘맹·왕기석·송재영·윤진철 등 50대 남자 명창들의 조합으로 이뤄졌다. 이들 명창들은 잇달아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특기로 다양한 유파의 소리를 풀어낸다. '판소리다섯바탕의 멋'은 24일 전인삼의 '동편제 흥보가(고수 조용안)'로 막을 올렸다. 전 명창은 제비노정을 비롯한 박터령, 놀보 제비 후러러 나가는 등 재담이 어우러지는 대목의 판소리를 선보였다.

우진문화재단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전인삼·박춘맹·왕기석
송재영·윤진철 등 초청
28일까지 5일간 공연

이어 25일은 박춘맹의 '보성소리 심청가(고수 정인성)' 무대로, 범피종류 대목에서부터 눈 뜨는 대목까지를 들려준다. 특히 아 나리 하나 없이 30여분 넘게 소리만으로 이어

아만 하는 범피종류 대목에서부터 심청이 물에 드는 대목이나, 황성 올라가는 대목 등은 이 곡의 눈대목이라 칭할 수 있다. 왕기석 명창은 '박초월제 수궁가(고수 전주호)'를 초입부터 끝까지 부른다. 이 수궁가는 고음과 미성을 지닌 소유자들의 소릿제를 들려받아 남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섬세한 감성 표현과 사실 전달력으로 소리를 구사하는 왕 명창의 소리가 기대된다. 송재영 명창은 '동초제 춘향가(고수 권

학대)'를 노래한다. 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이 내려다보이는 박석고개를 넘는 대목부터 옥중에 있는 춘향과 재회하며 기쁨을 얻는 동헌경사 대목까지의 소리를 엮어 보인다. 28일 무대에선 윤진철 명창의 '보성소리 적벽가(고수 윤영진)'를 만날 수 있다. 적벽가는 '삼국지연의' 가운데 적벽강에서의 싸움과 앞뒤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으로 '화용도'라고도 불린다. 소리는 삼고초려로 시작해서 조자룡 활 쏘는 대목, 적벽대전, 새타령 등으로 이어진다. /정해은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2018 토요일상설공연 28일 개막

국립무형유산원이 28일 '사라지지 않는 빛, 기원' 특별공연으로 2018년 토요일상설공연의 개막을 알린다. 이번 개막공연은 무형유산원의 무형문화재기념관인 '사라지지 않는 빛'의 개관에 맞춰 마련됐다. 무대는 처음무(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를 시작으로, 안숙선 명창·김정만 명고가 선보이는(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판소리 심정가, 임석환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와 음악가 김성배의 협연 무대, 덧벚기춤의 이윤석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와 김금화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신굿 및 대동굿)가 출연해 나라의 안녕과 개인의 평안을 기원한다. 토요일상설공연은 28일 개막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 송년공연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품격 있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통 계승을 이어가는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5월에는 전통음악의 갈래를 알아보는 '전통음악의 갈래, 맥脈'을, 6월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강강술래·해녀'를 무대에 옮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7~9월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무형문화재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들의 한바탕 '2018 이수자전(傳)'으로 인사한다. 10월엔 시대의 명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작고 보유자를 회고하는 '명인 오마주' 공연과 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시아의 전통인형극(일본·중국·인도네시아)'을 펼쳐 보인다. 11월에는 전통공연 연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신진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통공연 연출가 발굴공모전·출사표' 공연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2017토요일상설공연에서 선보인 '줄타기' →



내일 전주시립교향악단 '2018 KIDS CONCERT'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 클래식 '2018 KIDS CONCERT'를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연다. 키즈콘서트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재미있는 오케스트라 악기이야기와 환상적인 발레와 게임음악, 그리고 만화영화 주제곡이 화려한 영상으로 꾸며지는 공연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공연은 미녀와 야수 OST를 오프닝으로,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차이코프스키 발레모음곡 호두까기인형 중에서 '중국인의 춤' 등 클래식 음악에 생소했던 어린이들에게도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뽀로로, 타요, 구름빵, 로보카폴리, 포퓰, 터닝메카드, 난자고 등 어린이들이 평소 즐기는 만화영화 OST 함께 부르기도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이희정밴드

전북문화관광재단, 청춘마이크 4월 공연 선보여

전북문화관광재단이 2018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4월 공연을 진행한다. '청춘마이크'는 열정과 재능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과 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전북권역에서는 총 15팀이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문화가 있는 주간)'에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공연은 25일 오후 5시 전주 중앙실업광장(객사 중앙교회 앞)에서 펼쳐진다. 평창올림픽 응원가로 관심을 모았던 허랑은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이색적인 퓨전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이희정밴드, 그리고 고니밴드가 무대를 꾸민다. 오는 27일 전주 덕진공원 만남의 광장 특별무대에선 모던 포크듀오 이상한계절, 전주시호보대사 비보이팀 라스트포인, 남성 7인조 창작국악 민속악단 樂비리를 만날 수 있다. 28일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 앞에서는 인디밴드 레이진, 비보이팀 서울헌터스, 감성 재즈스트림 김성수 모던재즈트리오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매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